朝鮮日報 夕刊
二十八日(日)
本紙朝夕刊二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利錫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鮮日報(日刊) 朝光(月刊) 女性(同上) 少年(同上)

社說 布敎規則의 改正

一

宗敎의 信仰과 및 그의 宣布는 憲法에 그 自由를 保障하여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 自由의 保障은 絶對無條件이 아니오 一定한 條件下에 保障으로 되어 잇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잇는 바이므로 長說할 必要가 업는 것이다. 이 保障된 自由의 史的由來를 살피어 본다면 宗敎와 政治가 功然히 區別되지 아니할 때에 宗敎의 關係로 因하야 政治가 左右되고 따라서 人間世界에 不幸을 齎來하는 큰 原因이 되여 오던 고로 一時勃興을 본 自由思潮와 및 宗敎와 政治의 分化作用이 互相錯綜되여서 一國의 國憲에는 宗敎信仰의 自由를 許容하는 同時에는 宗敎와 政治는 完全히 區分되여서 人間生活의 一部面式을 맛게 된 것이다.

二

元來 宗敎는 人間生活에 잇서서 內的活動을 規制하는 것으로 心靈의 安慰를 엇고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宗敎生活의 本質은 個人的이요 그에 反하야 政治는 人間生活에 잇서서 外的活動을 制約하는 勢力의 主從關係이기 때문에 그 本質는 社會的이다 그러므로 政治와 宗敎는 何等의 關係가 업슬 것이다 그러나 宗敎나 政治가 人間을 中心으로 된 生活現象이요 더욱히 近代宗敎는 信仰의 個人的 自由性을 떠나서 數多한 形式과 組織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宗敎는 社會化되고 말은 것이다. 우리 朝鮮에서도 近代佛敎는 寺刹이 잇다고 하여도 僧侶를 個人의 心靈修行場으로서의 役割을 하여 왓고 組織化되고 社會化하여서 大衆에게 敎權勢力을 가진 것은 比較的 적엇던 것이다. 그러나 基督敎敎會는 當初부터 組織化되엿고 社會化되여서 個人의 心靈救濟보다도 차라리 社會的 意義를 多分히 包含하엿던 것이다.

三

佛敎나 基督敎가 社會化되고 組織을 가지게 되고 敎權이 統制力을 가지게 된 때에 政治와의 關聯性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國家에서는 國家意識을 實現하기 爲하여서는 宗敎團體에 對하야 이 國家意識에 一致되는 動作을 要求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强力的 精神統一을 全民衆에게 要求하게 될 때에 宗敎信條와 齟齬가 되는 바가 잇다고 할지라도 또는 多少의 信仰自由를 抑壓하는 일이 잇다고 할지라도 國家는 그 意識하는 바에 쫏차서 나아가는 수 밧게 업는 것이다. 이와 가튼 것은 古往今來에 歷史가 늘 우리에게 敎訓을 주고 잇는 바이다.

四

今般 總督府에서는 布敎規則을 改正하기로 하는데 從來에 放任하야 두엇던 寺刹과 및 敎會에 對하야 强力的 統制를 實行하야서 敎會와 寺刹의 新設에는 許可制를 採用하고 또 敎役者는 認可制를 採用하기로 하는데 學務局案과 警務局案이 多少相異가 잇다고 한다 어쨋던 時局이 時局인 만큼 國民精神을 總動員하여야 될 것이요 따라서 宗敎의 一般的 統制도 必要할 것이다 이와 가튼 統制에 對하야 自由主義思想을 多分히 가진 基督敎會에서는 한가지의 衝動이 될 것에 틀림이 업슬 것이다 그러나 國家意識의 目的하는 바에 向하여 一致合流하는 것이 當然할 것이요 또 改正되는 規則 그 自體와 및 그 運用에 잇서서는 國家의 安寧秩序에 關係되지 안는 限 信敎自由의 憲法의 保障을 絶對로 尊重하여야 할 것이다.

牛頭山、尖山線目標로 到處、壯烈한 激戰 頑强한 敵、遂陣地退却

【○○二十七日發同盟】我軍은 二十七日早曉 一齊히 行動을 開始하야 廬山西南側 牛頭山 尖山線을 目標로 하고 攻擊을 하엿다 田中、園田兩部隊는 砲兵의 掩護射擊下에 前進하야 隨處에서 壯烈한 陣地戰을 展開、園田部隊의 一部는 牛頭山 附近의 高地에서 主力部隊와 갈리여 峻嶮한 山地를 올라 山腹에 構築한 無數의 陣地에 據한 敵을 攻擊、一步一步 前進하야 山谷을 隔하고 敵에게 機銃小銃의 猛射를 加하며 或은 高地를 迂回하야 攻擊하는 等 想像以上의 苦難의 戰鬪를 繼續하엿다 이러는 동안에 我○砲及○○砲는 敵主陣地에 集中하야 砲擊을 加하며 海軍機도 亦是 地上과 緊密한 連絡을 取하야 敵의 主要陣地에 猛爆을 加하엿스므로 頑强한 抵抗을 繼續하든 敵의 大部隊도 이 攻擊에는 抵抗치 못하야 陣地를 버리고 退却을 開始하엿다

馬鞍山、炎閥山에 果敢한 攻擊開始

【○○二十七日發同盟】瑞昌으로부터 進擊을 開始한 ○○部隊는 東南을 거처 南潯鐵道西方 ○○軒의 地帶를 沿하야 山岳地帶의 殘敵을 擊破하고 二十七日午前七時頃에는 빠르게도 敵의 堅壘이던 鯉魚山을 단숨에 陷入 右翼部隊도 이와 同時에 岩架山의 敵據點을 突破코 午正頃에는 兩山山麓으로부터 長嶺線에 肉迫하야 午後三時에 드디어 이를 陷入 士氣가 益益旺盛한 將兵은 繼續하야 敵의 據點인 馬鞍山、炎閥山의 要害에 挺身果敢한 攻擊을 續行하고 잇다

六安肉迫

【○○二十七日發同盟】漢口進擊 江北部隊先頭는 二十七日 午前十時半에는 六安東北 一里地點에 達하며 다른 一部는 同日日沒頃 六安南方 一里半의 次郞廟及 그 南方 約一里의 咸家橋線에 進出하야 大別山의 敵據點을 노아 퍼보고 잇다

皇軍의 毒瓦斯使用 支那軍이 虛僞放送

【○○二十七日發同盟】支那軍이 卑怯하게도 毒瓦斯를 使用하려 할 때에는 반다시 그 使用前에 日本軍이 毒瓦斯를 使用한 것가티 宣傳하는 것이 常套手段인데 最近 支那軍은 또 日本軍이 黃海方面에서 毒瓦斯를 使用하엿다고 虛構의 데마放送을 根氣잇게 反復하고 잇스므로 我軍에서는 支那軍의 毒瓦斯使用의 前兆로 推測하고 各前線將兵은 特히 防毒에 對하야 細心한 注意를 하고 잇다

陽新防備에 必死

【香港二十八日發同盟】支那側報道에 依하면 瑞昌을 占領한 我長江南岸進擊部隊는 다시 猛進을 繼續하야 二十八日에 이미 그 先鋒部隊는 湖北省內에 進擊 敵의 前線要地인 場所에 突入하엿다 支那側은 이 前線에 續續援兵을 派送하야 陽新을 必死的으로 防備하고 잇다고 傳한다

陳誠、陽新에 出馬

【九江二十七日發同盟】情報에 依하면 漢口衛戍總司令의 陳誠은 스스로 江南戰線의 重要據點 陽新에 出馬하야 決死之勢로써 我軍의 攻擊을 阻止하라고 麾下의 四十七個師를 督勵하야 必死的防戰을 行하고 잇다 한다

續續增援兵集結 馬廻嶺、五臺嶺等에

【○○基地二十七日發同盟】空中에서의 偵察에 依하면 德安防衛의 第一線을 我軍에게 擊破된 敵은 德安의 危機가 切迫함에 狼狽하야 破壞된 橋梁을 修理하고 德安東西北三方의 馬廻嶺 黃老門 五臺嶺方面의 陣地에서 我軍의 進擊을 阻止하랴고 同方面에 續續兵力을 增援中이다

【○○二十七日發同盟】二十七日 午後八時二十分 ○○山의 我○○砲陣地는 廬山麓의 敵陣地에 集中하야 發砲 ○○의 ○砲陣地도 이에 互相呼應하야 敵에게 猛擊을 開始하엿스며 또한 山腹의 ○○部隊도 一齊히 攻擊을 開始 銃砲聲은 南潯鐵道沿線一帶를 흔들고 잇다

商業航空路一切 放棄키로 決定
中國、歐亞航空公司兩會社에서 僻地外人은 孤立難免

【紐育二十七日發同盟】二十七日 紐育에 達한 A、P 香港電報에 依하면 中國航空公司及 歐亞航空公司의 兩會社는 最近의 不時着事件에 鑑하야 此際에 所謂戰鬪區域內를 通하는 商業航空路를 一切放棄하기로 決定하엿다 한다 이 結果 漢口로부터 宜昌、重慶、昆明을 거처 佛領印度支那까지의 定期空路를 除外코는 蔣政權下의 支那奧地에 殘留한 外人은 孤立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雜誌用紙二割節減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 新聞用紙에 이어서 雜誌用紙를 半年下期에 잇서서 前年同期보다 二割可量節減하게 되여 日本雜誌協會에 立案을 命하엿는데 同協會에서는 今番에 如左한 一案을 當局에 提出하엿다

一、雜誌協會加盟員 五百七十五名은 그 發行인 雜誌 約七百種에 對하야 各各 昨年下期總量보다 紙量에 잇서서 一割의 用紙節減을 斷行한다

一、이 節減方法으로 雜誌一卷에 使用되는 頁數를 減少하는 方法과 返品物의 節約等에 依하는 發行部數의 節減等의 兩節減方法으로써 用紙節約二割에 達하도록 實行한다

滿鐵機構改革 全般的改革은 將來에

【大連二十七日發同盟】滿鐵機構改革에 關하야 二十七日重役會議를 開催하엿는데 席上 松岡總裁는 現在 我國은 戰時體制下에 잇다 對支政策에도 戰爭의 進行에 伴하야 將來 幾多의 變遷이 豫想되며 現在即時、滿鐵全般의 機構改革을 斷行하드라도 情勢의 推移는 再次 이것을 變更시킬 狀態에 잇다 全般的改革에 잇서서는 現在 그 時期가 아니라고 意見을 開陳、全重役도 贊意를 表하야 滿鐵全般機構變革은 即時實行하지 안키로 決定하엿다 一方 滿鐵으로서는 當面의 情勢에 即應하야 新京支社의 擴充、奉天鐵道總局과 大連本社와의 局

야파投彈事件으로 亞剌比亞人示威運動

【야파二十六日發同盟】二十六日 亞剌比亞人野菜市場의 爆彈事件으로 因하야 야파港一帶의 商店及警察署에 頻頻한 放火가 잇스며 亞剌比亞人勞働者怠業으로 旅客貨物의 各一列車脫線事件이 發生되는 等 形勢不穩하다 그러므로 夕陽에는 消燈令을 布告하고 英國軍隊를 出動하야 暴徒를 拘束하엿스나 鎭壓되지 안는 모양이며 午後에는 戒嚴網을 펴고 銀行이 閉鎖되며 亞剌比亞人이 示威運動을 하야 同銀行은 危險케 되엿다 또한 市內各處의 猶太人에 對抗하고 잇는데 事態는 惡化될 形勢에 잇다

야파港에 爆彈騷動 亞剌比亞人多數死傷

【야파=팔레스티나=二十六日發同盟】亞剌比亞人對猶太人의 民族爭鬪를 圍繞하는 英委任統治地 팔레스티나의 騷擾는 依然險惡한 形勢가 繼續되는데 二十六日早曉 야파港의 一亞剌比亞人野菜市場에 爆彈을 投下한 者가 잇서서 爆彈의 炸裂로 말미아마 亞剌比亞人에 死者六名 負傷者二十名을 내엿다 이것을 契機로 야파港의 亞剌比亞人勞働者는 罷業을 決行할 氣勢를 보이게 되엿스므로 英國軍隊가 即時出動하야 全街頭를 占領하고 警戒하고 잇다

瑞昌攻略戰에 敵의 遺棄屍體三千

【瑞昌二十七日同盟特派員發】三日間에 亘한 瑞昌攻略戰에서 敵에게 與한 損害는 豫想以上으로 莫大한 數에 達하엿다 捕虜三百、遺棄屍體만도 三千을 내여 거이 一個師를 完全히 殲滅시켯다 去二十五日夕陽까지에 判明된 鹵獲品은 如左한데 只今까지의 戰鬪에 比하야 火砲가 적은 것은 敵이 漢口近郊戰에 備하야 漢口附近에 砲를 集中시켯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山砲 三門 砲彈 五百發 迫擊砲 四門 砲彈 千五百發、機關銃 三十挺 小銃 四百挺 同彈丸 二萬五千發

國府態度에 憤慨 廣東共黨示威運動

【香港二十七日發同盟】漢口에서 二十一日 發行停止處分을 바든 共産黨機關紙 新華日報는 去二十一日 … 廣東에 잇는 共産黨靑年分子는 이 事件으로 大衝動을 바든 外에 廣東省主席 吳鐵城等中央系의 廣東共産分子彈壓에 對한 憤懣도 겹처서 二十六日 드디어 事變以來 最初의 共産黨데모가 廣東市內外에 잇섯다 데모參加者는 作家、藝術家、學生等 左翼分子約五百名으로 煽動演說을 하는 等 蔣介石에 對한 抗議的決議文을 可決하고 散會하엿다 그 結果 廣東의 國共兩黨軋轢은 今後 益益激化될 것으로 觀測되며 그 推移는 極히 注目된다

貴衆兩院議員視察團 卅日羅津入港

【東京電話同盟】貴衆兩院滿蘇國境視察議員團一行 小山議長以下十三名은 二十七日午後十時二十五分 上野驛發로 出發한 一行은 三十日羅津入港 即時雄基로 向하야 三十一日、一日의 兩日은 今次事件의 中心地인 張鼓峰、慶興附近을 視察、이어서 牡丹江、綏芬河等을 거처 黑河、國境地帶의 一般狀況을 視察하고 十四日午後新京着、十五日滿洲國皇帝께 拜謁、이어서 張國務總理의 招宴에 臨하고 國都建設狀況을 視察한 後 新京에서 解散한다

日曜氣配

◇期米 昨日의 高얏든고 天候推移를 觀望閑散、氣配不變

◇株式 材料待로 積極進出이 업스나 一部物色買潛在하야 底氣强硬

大新 三〇、三〇 東新 一三一、〇〇 鐘紡 三一、五〇 滿業 一七、五〇

人事·集會

◆咸尙勳氏(本社編輯局長) 滿蘇國境事件現地視察次 廿八日午後三時五十分 京城驛發羅津에

체코問題를 圍繞코 歐洲에 恐怖說!
英政府는 萬一의 準備

【倫敦二十七日發同盟】프라하府에서의 런시만卿의 和協工作은 아직 奏效치 못하고 歐洲의 不安은 依然低迷하고 잇는 此際에 同氏의 隨員 그와 트킹氏가 急遽倫敦에 歸還、체코問題斡旋의 中間報告를 行한 結果 二十七日 사이먼藏相이 三月에 한 對체코聲明을 再確認하는 演說을 하엿다 歐洲의 戰爭危機에 對하야는 倫敦에서는 獨逸政府가 過去三週間에 倫敦市場에서 고무 銅 鉛等多量을 買入하야 十日間에 金八十萬磅을 倫敦에 現送한 事實에 鑑하야 오는 十日間 뉴른베르크에서의 나치스黨大會前後까지에는 危機가 到來하지 나 안흘까 하는 恐怖說이 流布되고 잇다 英國海軍의 北海演習도 萬一에 備하기 爲함이요 陸軍首腦部도 今夏는 倫敦을 떠나지 안코 待機하고 잇다 하며 체코政府의 新提案에 期待를 갓고 잇스나 本事件은 伯林態度如何에 달렷다는 消息通의 意見은 一致되고 잇다 체임버렌首相은 二十九日 倫敦에 歸還、할리팍스外相、사이먼藏相等과 다시 協議할 터이나 주데텐黨의 態度에 變化가 업는 限 不安한 情勢는 한동안 繼續될 것으로 觀測된다

英政府外交基調는 積極的平和政策
체코問題에 關聯한 英藏相演說要旨

【라나-크=스코트랜드=廿七日發同盟】사이먼藏相은 廿七日午後一時四十五分부터 스코트랜드의 라나-크에서 內閣支持의 政治集會에서 체코問題에 對한 英國政府의 外交方針을 宣明하는 大演說을 行하엿다 사이먼藏相은 爲先英國外交의 基調는 「積極的平和政策」에 잇다고 强調한 後 체코問題에 드러가 如左히 述하엿다 英國政府의 態度는 去三月二十四日 체임버렌首相이 下院에서 行한 演說로 適確히 表現되엿다 同演說은 今日에 이르러도 同樣으로 有效하다 此에 何等附加修正할 點은 업다 一旦戰爭이 이러나면 그 反響은 어데까지 擴大될는지 알 수 업스나 如斯한 事實에 鑑하야 余는 歐洲의 現在의 諸勢力에 訴하야 체코問題를 公平한 平和的解決을 圖하기를 特히 切望하는 바이다 雙方은 善意로서의 一切의 共通的 利害에 適應한 解決案을 提出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 아니다 英國政府는 仲裁役으로서 런시만卿을 派遣하엿거니와 同氏는 英國政府를 代表하는 것이 아니고 世界의 正義로 平和의 友로 代表하야 活動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三月二十日 체임버렌首相이 下院에서 獨墺合邦後의 中歐情勢에 言及하야 체코援助의 補償을 與하지 안헛스나 戰爭이 勃發한 境遇에 이에 關係치 안흘 수 업다고 英國政府의 決意를 披瀝하엿다

(寫眞은 사이먼藏相)

香港漢口間 連絡杜絶

【香港二十八日發同盟】中國航空公司가 遭難의 다그라스機 不時着事件에 鑑하야 香港重慶間의 空路를 中止한데 이어서 歐亞航空公司도 二十八日부터 香港 漢口間 空路를 中止하게 되엿다 香港 漢口空路는 中國航空公司의 漢口 重慶線中止에 압서 十數日前부터 이미 停止되엿스며 今番의 歐亞航空公司線의 中止로 因하야 全혀 그 航空路는 停止되므로 香港漢口間連絡은 粵漢線不通에 따라 益益困難하게 되엿다

八面鋒

◇사로니카協定、브렛드協定의 成立으로 小康을 보일듯하던 歐洲政局 또다시 恐怖說로 暗雲低迷。

◇大戰爭의 勃發은 大國들의 態度如何에 잇는 것이오、小國들의 뜻대로 되는 法이 아니니까。

◇平和는 人類의 希求하는 바、그러나 利害相衝되는 國際關係를 어찌 條約만으로 結縛하고 잇스랴。

◇戰爭이 週期的이란 말도 그럴듯、戰爭을 업새기 위한 戰爭이란 말도 一種의 戰爭不可避論。

◇宗敎를 統制코저 敎役者의 認可制、敎會 布敎所의 許可制를 쓴다고。

◇元來 信敎는 人民의 自由權의 하나로 憲法의 保障된 바라、

◇아무리 統制時代라 할지라도 宗敎에까지 統制를 하는 생각할 問題가 아닌가。

今日本紙四面

世界週史

日滿伊貿易協定

伊太利經濟使節團의 日滿來訪을 機會로 去七月五日 東京에서 調印된 日滿伊貿易協定은 今月二十四日 批准을 完了하고 九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엿는데 協定要旨는 如左하다

一、協定價額 日滿兩國을 一方으로 하고 伊太利를 他方으로 하는 一對一의 求償貿易을 確立하고 그 總額 約一億五千萬리라로 함 但協定貿易額에 對하야는 日滿兩國은 屬地貿易도 包含하고 伊太利는 植民地及 屬地貿易을 除外함

二、日滿兩國의 對伊輸出入貿易 及 그 國別에 對하야는 配定을 아니함

가、決濟方法 當初日本은 淸算制度를 主張하엿스나 手續이 繁雜한 때문에 求償制度를 採用키로 變更하고 六個月마다 兩國間의 貿易尖을 算出하야 節約期中 輸入이 超過되지 안토록 相對國으로부터의 輸入을 停止하는 一方國은 相對國이 各該限度까지 買受을 行하기까지 輸入을 停止함

나、協定有效期間은 滿五年 九月一日부터 一個年間 但期間滿了三個月前에 廢止치 안을 時는 自動的으로 六個月式更新延長키로 함

小協商國新協定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三國代表는 去二十一日以來 유고슬라비아의 브렛드에서 小協商國會議를 開催하고 洪牙利의 對獨接近阻止策을 中心으로 協議를 繼續하여 왓든 바 洪牙利와의 協定締結에 成功하야 二十三日에 對洪牙利工作의 成功을 發表하엿는데 그 要旨는 如左하다

小協商國은 過去一個年에 亘하야 洪牙利와의 사이에 協議를 續行하엿는데 洪牙利及 小協商國은 相互武力에 訴치 안키로 約束하며 또한 洪牙利의 軍備平等權을 承認하는 新協定에 到達한 것은 兩者의 友好關係를 促進하기를 希望하는 바이다 다시 그 他若干의 問題에 對하야 協議를 續行中이나 아직 決定되지 안햇다

佛勞働、土木兩相更迭

佛國 라미디에 勞働相及 프로잘 土木相은 二十一日에 突然히 辭職하고 그 後任에는 同日午後에 獨立社會黨에 所屬한 元文部次官 포만氏가 勞働相으로 元文相 드몽지-氏가 土木相으로 各各 任命되엿다

今番更迭은 佛國政府가 四十時間勞働制의 一部改造를 斷行하야 마치내 內閣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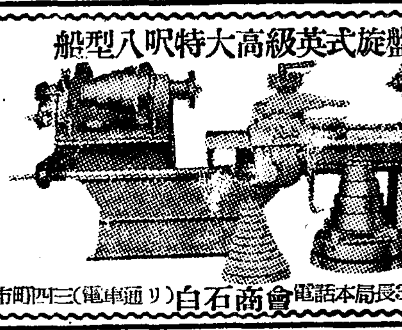
佛支間借款成立

國民政府의 西南導入에 伴하야 佛國은 支那의 對支援助積極化에 對하야 … 二十三日 上海에서도 여러가지 風說이 잇든데 二十三日 國府來遠 … 佛支借款은 宋子文의 主宰인 … 銀行代表가 巴里에서 佛支借款의 手續에 成功하엿다고 報道하며 그 內容은 如左하다고 傳하고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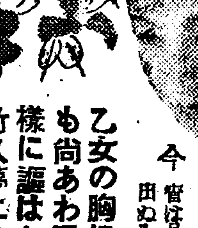
一、金額 一億五千萬法 (約二千五百萬圓)
一、目的 貴州 廣西鐵道建設、
一、條件 鐵道材料一億二千萬法 現金三千萬法
一、擔保 同鐵道收入及鑛稅
一、利率 年七分
一、償還 十二年

二重眼瞼手術
公眼科醫院
醫學博士 公炳禹
京城府鍾路二丁目(電話光207番)

盤旋式英級高大特呎八型船
賣却案內 在庫豊富
御希望ノ節ハ御照會乞フ 出精決着値段御見積申上候
京城古市町三四(電車通リ) 白石商會 電話本局長3861·7250



八月廿九日封切
世界發聲 ニユース映畵
常待草
監督 佐佐木康 主演 高峰三枝子 川崎弘子(?) 三井秀夫 大二郎
待てど暮せど來ぬ人を 宵待草のやるせなさ 今宵は月も出ぬさうな
乙女の胸に今も尚あわ雪の様に漲はれる竹久夢二の純情詩!
脚本 荒田正男 撮影 寺尾清 音樂 万城目正 作詩 竹久夢二 作曲 多忠亮
ワーナー社特作 監督 アーチ・レ・メーヨ
火花を散らす…… 戀の鞘あて!
戀愛合戰
主演 レスリー・ハーワード ベツト・デーヴイス オリヴイア・ロ・ハーヴイランド
明治座



8月29日 公開
新版 巴里祭の夜の真
コロムビア超特作 … 主演 アーナ・ナ・ロイ フランク・キャプラ監督
早朝開時間映畫まで御入場の方 均一…二十錢
若草劇場

晝夜 簿記生徒募集
京城簿記學院
京城府瑞麟町川邊 天一館 電光八二一
有名한 스끼야기 美味의 朝鮮料理는 天一舘!
大小宴會는 簡單히 天一舘에서!
讀張紀念 特別奉仕합니다

中國名藥 强精靈藥 强性
早漏 百靈丸
淋疾梅毒 秘傳名藥
滿蒙家特産物商會

腫症仙藥 趙膏藥
어른은 피부가 불리서 종기가 나기 쉽고 나면 덧나기 쉬운지라! 종기가 나드래도 서초에 부치면 곳가라 안고 섬초하기도 근을 셰여내는 「도고약」! 엿지마시고 도고약으로 치료하시옵
【効能】 ◇모든 부스럼 ◇모든 곰창 ◇유종 ◇담종 ◇오래된 부스럼 ◇멍울 ◇낙상 어혈 ◇견비요통 ◇기타 무명종독에 신효함
(定價) 五錢 十錢 二十錢

救急神藥 天一 麝香蘇合丸
【効能】 어른 아이 급한 토사곽란! 지진 감긔 하면 큰일이오 명상 「천일사향소합환」을 준비해두시다가 급할 때 써 보시오
◯곽란 ◯토사 ◯체증 ◯식체 ◯복통 ◯기진할 때 ◯급경 ◯구역질 ◯졸도 ◯중풍 등에 특효합니다
(定價) 二十錢 三十錢 一圓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發賣元 天一藥房 京城府鍾路通

'太陽을등진土幕街' 根本的整理에着手

府有地를提供하야自力更生하도록 京城府의基礎調査進捗

현재경성부의 가장큰악종으로 되여잇는 토막민(土幕民)은 나날이 늘어만가고잇서 실로 오천여호에 달하여잇는 현상이다 이수만흔 토막민이 그자체가대양업는 가궁한생활을하고 잇는것은 우선 고만두고라도 도시미관상 또는도시의보건위생상가진비판적재료의 온상이되여 잇서그정리가바야흐로 시급하고긴한문제로되여잇다 경성부당국에서그동안 이에대하야 흙은아현정(阿峴町)에흙은 정능리(貞陵里)홍제외리(弘濟外里)에서 그보호사업을하지안흔것은 아니로되 그사업원측이 토막민을그저부내에서부외로 구축하는데 기우러젓섯고 그들을 향상구제함에는 자못 거리가 멀엇던점을 면치못하는 현상이엇다 이리하야 도심(都心)에서 한거름식 퇴각은하여가드래도 쉬지안코 버러저나아가는 부세는 결국 순식간에 또 그떠러저간 토막민이문제가되게쯤 되여가서 근본적정리는 도저히 기할수업게되엿다 이리하야 경성부당국에서는 금후이토막민을 조사하야 토막민에서는 비교적여유가 잇스면서 일부러 토막생활을하는 사람은 단연이를 제외하고 순전히 그형세가 가궁한사람들 만을위하야근본적 보호정책을 쓰기로결정하고 방금조사를 급히하고잇는중이다 이조사가 끗나면이에따라명년도부터 현재별로리용되여 엇지못하는 부유지(府有地)를 그들이 무러갈수잇는 극히저렴한 보상으로 주어서 집을짓게하야 차차 그보상을 다하여갈때에는 그토지와 집을소유하야 토막민의 신세를버서나서향상하여가도록 계획을세우고그실천을기하고잇다고한다

寡婦家에刺客

痴漢?强盜?수수꺼기가튼事件 龍山署、容疑者를引致

전당포종업원부를 칼로찔너버린괴상한 상해사건이 원정(元町)이정목에서 일어낫다 지난이십륙일밤 아홉시쯤되여서 시내원정(元町)이정목칠십칠번지이등전당포(伊藤質屋)밋칭 십조방에서 잠자리를펴고잇던 그집맛딸인 파부『미요시』(三○)의 얼굴을 어느자의 소위인지 칼로찔너버리고 그여자가 비명하면서 좃도하자 [illegible]상으로뛰여나가 버리엿는데 그때 그집주인『다게사』(六○)라는노파는 룡산역에누구를 전송하려나가고 제이고녀(第二高女)에 단이는『미요시』의동생이 방가방을지히고 잇섯던때엿다 그래서 소관룡산서에서는 곳현장을검사하고 상해당한여자를 부근십자병원에 입원시키는한편 범인을 잡기위하야 비상선을첫는데 현장에는아모것도 훔처간것은업고 상해당한여자도다만 키가큰사나히인것만알고 다른것은전연 알수업다는애매한말을하므로 이것은강도를목적한것이안이라 정절관게가 안인가하고 동녀를취조하는 한편 이십팔일아침에는 원정삼정목모처에서 무안군망운면(務安郡望雲面)에 본적을두고이개월전에상경하엿다는 양요리쿡신 장팟(張長均)(二三)외두사람의 용의자를 체포엄중취조중인데 수수꺼끼가튼사건의 진전이주목된다

"반가운第二故鄕"

선물은짐을끄른뒤에 培材亞校長今日歸京

작년 오월 안식년으로서 미국에도라갓던 배재중학교 교장아펜셀러씨는 일년삼개월만인 팔월이십팔일 오[illegible]시사십오분착『아까쓰기』로 부인과 리좌ー드군남매를 다리고 다시서울에도라왓다 프래트폼에는 배재학교 학생을위시하야 학교관게자 지우명사 삼백여명이 출영하엿는데 차에서 내리자 기자를향하야 다음파갓치말하얏다

일년남짓하엿건만 오래동안버리엿던 제이고향은 여전히반갑습니다 선물로 무엇을가지고왓느냐고요 글세 아즉은집을 끄러보지안햇기에 말슴드릴수업습니다

더욱 씨가 조선교육사업에 무엇을 선물로 가지고왓는지 미리부터학교관게자와 면지로엿라한일이잇섯다하니압일이주목된다

(사진은 경성역에 도착한 아펜셀러 교장)

大邱居住二少年 移動警察에걸려

【新義州】 지난이십오일오후영시

府議選擧戰을警戒 町會役員을嚴選

廢合以後試鍊이注目

경성부다년의 중대현안인든정회개조문제(町會改組問題)는 드디여구월상순에될 신정회의결정과함께 완성되기까지에 이르럿는데 지금칠십만부민의 주목을 끄으는점은 새로출현하는신정회가 부정회용상 얼마나한효과를나타내가하는점이다 소화십일년도사월 부역확장과함께 정회수는 갑작이증가하야 이백사십을 헤이게되엿는데이와가티만흔 정회로서는 보정과의연락통제가 곤난할뿐아니라 한정회에 차려지는 보조금도적지안흔수입서 제일선에서 부정을 담당행하야 나가는데 여러가지 지장이 나타 나는점에서 정회개조문제는 최후의 해결에 향하야 금전회(念願)를하야 지난 일일부로서 신정회규정발표를 보기까지에 어른것이다 부당국이 단호한결심을 가지고 지난봄 개조문제에 착수하자 부공직자사이에는 은연히 반대적동향을 하는분자까지 잇게되여문제는 예상외의 파란을 겪게되엿섯다 명년사월 부회의원개선기를 목전에 두고정회개조운의 두려워한것이 반대파의리유로 선거지반에 큰변동이 생길것을 하야가며 지금까지에이르럿는데 부당국으로서는 신정회가선거지반으로 리용되는일이 업도록순비의원의 인선부터고심하엿다고 한다

이와가티신정회와명춘선거전은 아주미묘한관계를가지게되엿는데 녀래 부민의대망인『선거숙청』어 어느정도까지 실현될는지는 신정회의긴용을 부민아페 보여주는것이며 명춘에박도한 부의 선거전이야말로 그첫시련(試鍊)이될것으로 지금부터 칠십만부민주시의초점이되여잇다

貯蓄報國、好成績

時局突破의決意固鞏

총독부에서는 지난이십일일부터 이십칠일까지 열주간을시국하의 국민정신총동원 저축보국(貯蓄報國)강조주간으로 정하야 전조선을총동원하야 관민일치협력하야 저축장려와 그실천에노력한결과 다음과가튼 실적을어덧다

一、銀行=주간중의 전조선은행의 예금수불(預金受拂)은 수입구수(受入口數)가 십칠만사천팔백삼십칠구 그금액이 삼억어천팔백칠십이만구천오백육십육원이고 불출고(拂出高)는 삼억이천백삼십사만삼천팔백만원으로수불차인(受拂差引)하면 칠백삼십팔만오천팔백육십삼원의 증가를 보혓다 이것은전년동기와 비교하여보면 전년동기의 수입구수 십이만칠천오백사십구 금액일억구천 사백삼십이만 구백삼십구원, 불출고 일억팔천 구백삼십팔만 구백구십삼원에 대비하야보면 수입으로 사만칠천 백구십칠구 금액으로 일억삼천 사백 사십만팔천백이십삼원 불출로 일억삼천백구십삼만 이천팔백삼십원이 모두 증가되여잇다 또 이주간의 신규예금은 구백육십팔천칠백사십이구 구백육십육천칠백이십원이다

二、金融組合=수입고 오십삼만사천칠백육십구 일천이백삼만이천칠백 삼십칠원 불일천백칠십사만 육천삼백육로 그차인액이 구십구만팔백삼십일원의 증가를보이고잇다 이것을 전년동기에 비교 수입이 이십오만 사천오십 삼백이십팔만 사백팔십일원 출이백구십육만구천칠백육십어증가되여잇다 신규예금은 구수로이해당한금액은 일억팔천[illegible]천일에 해당한다

三、郵便貯金=수입이 사백이만이천구백이십구원이고 불출이 삼백사만이천사백삼십이원이다

四、信託會社=수입이 일천이백[illegible]천칠백이십일원 불출이 사십육만구천오백팔십오원이다

五、東洋拓殖會社=수입이천사만오천팔백칠십일원 불출이사십오만일천구백원이다 이것을 합게하면 수입구수가 백삼십오만칠천구백칠십오구 [illegible] 간중 순전히 증가된 예수가 실로 [illegible] 저축주신규원에 달하엿다

金津江又復氾濫

山으로避難할 길조차끈허저서 新上市民、驛으로殺到

【新上支局電話】 이십칠일밤이래의 폭우는 이십팔일아침열시에 그칫스나 금진강(金津江)상류지대에도 비가만히 와서 금진강은 각각으로 증수하고잇당 그리하야 지난번 수해로 제방이 문허진 새곳으로부터 탁랑이 범람하야 벌세 영산(靈山)으로는 피란조차 할수업시되여 주민들은 또다시 신상역으로 피란하기시작하엿다.

咸鏡線또不通

【新上支局特電】 금진강(金津江)은 또다시 각각으로증수되여철도선로를 넘어다시금 열차가 불통되고말엇다

【新上支局特電】 서번동에 련접든자리로 시내는 또다시 첨수되여 전시는 이미(泥海化)되엿다버는 계속 폭주중이다

沈村金組鈴木理事 九月五日北支應召

【沈村】 경의선 심촌역전(京義線沈村驛前) 심촌 금융조합리사(沈村金融組合理事) 영목무웅(鈴木武雄)(三○)씨는 오는 구월오일 북지성전에 출전키로 되엿다는바 영목무웅씨는 다년간심촌에잇서서 조합원은 물론일반 농촌흥을위하여 진력 하여오던바 금번출정을조합원은 물론일반민중은 작별을크게애석키 생각하

高山對岸의共匪

朝鮮을向하야猛射 寡兵으로應戰擊退

【新義州】 이십칠일 오전영시경 돌연 만포경찰서 고산진주재소(滿浦署高山鎭駐在所)바로마진편 만주국즙안현 제이구상활룡개(輯安縣第二區上活龍蓋)에 공서동북항일련군(共西東北抗日聯軍)의제일군정치위원(第一軍政治委員)이리엿귀는 전수명(陳秀明)이하일백이십여명의 공산비가습격하여왓다 어것을탐지한 고산진주재소에서는 수선이하일곱명의 경관이출동하야 자위단(自衛團)을 지휘하며 강안을 엄중히경계중 베적단은 조선쪽을 향하야 맹렬한 사격을 함으로 고산진주재소에서는 즉시 응전하야 강을끼고 약세시간동안이나 격전을 한것데 이를 격퇴하얏다는바 손해는 방금 조사중이라한다

殖銀三陟支店 九月中旬竣工

【三陟】 식산은행삼척지점(殖銀三陟支店)은 금년사월부터 [illegible] 개시하야 [illegible] 업무에따라 도저히현재의가점(假店)으로는 업무를처리할수업스므로 [illegible] 중앙(中央)에신축중(新築中)이데 적어도 오는구월중순께에는 준공되리라는바 총경비는 일반대부(一般貸付)사무도 적으로취급하리라한다

少年스리團逮捕

【平壤】 평양부내 [illegible] 지난이십일일에 소년스리단이 [illegible] 잡이하엿다는 말이 [illegible] 지지동주재소원들이 활동하야 소

虎疫騷動에못사는 千二百조개잡이

禁漁令解除後라도 얼씬못하게 仁川松島에조개饑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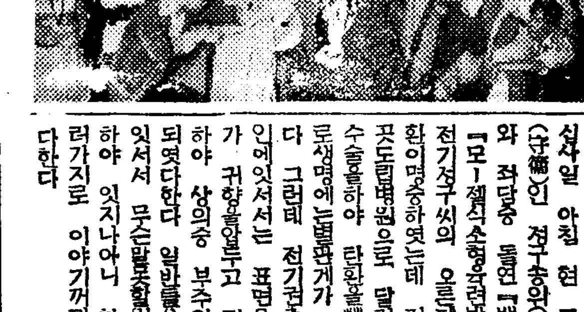
【仁川】 한동안 호열자(虎列刺)환자가 인천에 엄습하자 인천근해의 생선잡이를 금지시키는일방 인천명물의 하나인 조개잡이를 금지시키엇는데 이조개의 생산지는 송도(松島)유원지를 중심으로 그근방에 사는세민들에서 매일 조수가 나가면 그들은 몰려서 한사람이 한말이상 두말씩이나 따서 부내에 도매와팔면 매일이 얼워내지 이원의 수입을 보는것을 지난십사일이래 만이주일동안에 한번도 손을 대지못하엿스므로 그들조개잡이의 빈민 일천이백여명은 하는수업시 부내로 몰려드러일터를 어드러다니나 마땅한곳이 업서 식구가지의 생활이 막연하다는데 그자세한 이야기를 드른바에의하면 전기송도는 경기도 산업과에서 조개양식구역을 정해노코 감시원을 파견하야 감독을 시키엇스나 그것이 철저하되지못하므로 금어령(禁漁令)이 발포됨동시에 조개잡이를 엄금시키고 생선잡이의 해제는되여도 조개잡이는 양식구역바게도 만일을 염려하야 해제를 시키지안흠으로 그 근방의 어촌부녀들은 부업겸 생활을삼다가 창졸히 그와가티되여 할일업시 매일 양식구역 박게서 잡겟다고 부탁이 감시원에게 탄원을 하엿스나 듯지안흠으로 그들의 생활상 막대한 영향을 끼치우거니와 인천부내에서도 하절을 당하면 조개한가지로서 세가지의 요리를 만들다가 이주일이 넘도록 조개한개를 구경할수업서 주부들까지 비명을 부르짓는데 일반으로서는 그들생활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장차 어떠한 재단을 나릴지 어처사에 만흔주목을 이끌고 바이라한다

色鉛筆

더위도한때로다 어느틈에 엇추도지나 아침저녁옷깃을스치는바람속에 제법선선한맛을 알겟스니 올루나 벌서 가을인가하네▲고각 열두달을네집에 갈낫스니 봄 여름도 잠깐 이제가을도 잠깐이러니와▲배고픈허리를 졸라매고 그까마득보리고개를 넘어서 가물파 지긋지긋한 장마를 격그면서▲어느한식구의 목숨보다갈을 노픈벼이삭이고히 자라패엿스니잠깐채로가을을맛는 이땅의기쁨이크지아니하랴▲허나 그러못버한포기를살한점보다 애낀보람도업추수한 이튼날부터 만수충할를창자에도 힘든이가 얼마만흔이땅에▲가을이라 추수철이니 타작마당에 아귀처럼 몰려들 오갓비생이들의 잔인한 사무(?)가 여기저기잇슬지라 가을을맛는 술품이 또한 크지아니하랴▲허나 시절이 옛날파달라 법에어긋난 노픈이자를 당국이 아는대로는금하는터요 소작쟁의도 잇는대로는 작인의어울함을 푸러주려애쓰는때라▲하물며 총후의생활안정 사회의 명랑함을 직히려는 노력이 당국자에게 잇슬지니 비상시라비상한 가을을마저 밋븜이 또한 크지아니하랴

最後의練習

中央舞臺公演明日부터開幕



선구극계의 화제가되여 잇든 중앙무대 공연은 아프로 하로 명이십구일밤일곱시밤부터 부민관에서 시작되거니와 공연할로결한 이십팔일낫에는극본『카르멘』사막전부의 마즈막 연습이잇섯다 판게자전원이 몰려들은긴통제미러서 이국을 성공에 잇그려녀호하고 긴장한 가운데 준비를진행시키고잇다

(사진은 카르멘의연습광경)

相對者의命中

拳銃을突然發射

【群山】 전군산도립의원(前群山道立醫院) 서무주임(庶務主任)이연돈 판양일(關見一)씨는 지난유일에 퇴관을한후 방금부내서정(町)에 주거중인바 지난이십사일 아침 현 도립의원수위(守衛)인 정구송(井口松德)씨와 적당중 돌연『백이이』제인『모ー젤』식소형권총 권총으로 전기정구씨의 오른팔을 쏘아란환이명중하엿는데 전기정구씨는 곳도립의원으로 달려가서 직시수술을하야 탄환을빼여내엿스므로생명에는별관계가 업스리라한다 그런데 전기권총의 발사원인에잇서서는 표면은 판양일씨가 귀향을압두고 권총처분에대하야 상의중 부주의로 그러케되엿다한다 일반들은 그내면에 잇서서 무슨말못할원인이 잠재하야 잇지나아니한가하야 여러가지로 이야기꺼리가 되야잇다한다

阿片密輸犯逮捕

【新義州】 경성삼각정 한모(韓某)는 소화구년부터 금년팔월에 이르러 함북성진(城津)에서 안동현(安東縣)으로 아편밀수를게속하야왓는데 그수량은 삼십여관에 달한바 드디어 신의주경찰서에서 탐지한바되야 지난이십사일에검거되엿다 이일당은 여명에 잇서계정으로 계속하야 당국에서는 전거의손을펴고 잇다한다

보음 보양 엔 大丸

一吹世殺 イナシ

百貨店에大火

今曉、京都市의混亂

【京都電話同盟】 이십팔일 오전삼시반경되여 경도시 사조통(四條通)고창(高倉)에 잇는 대환대환(大丸)백화점 사층 사입부(仕入部)에서 불이나서 갓가히잇는『세루로이드』작난감에 불이부터순식간에 제일과대기인 팔층까지를 전부태우고 동세시경에 겨우 불을껏다 사상자는업스나양이며 원인과손해는 지금 소관오조서(五條署)에서 조사중이다

百餘人夫가大亂鬪

請負業者間에作業爭奪이原因 五臺山에警察出動鎭壓

【江陵支局電話】 평창군 진부면(平昌郡珍富面)오대산(五臺山)의 채벌(採伐)회사인부 일백여명이 이십칠일밤 크게어울어저 좌와가지고 중상자다수를내엿다 금번싸홈 경찰이출동 해산시기고 방금 원인을 조사중이며 도본바에의하면 청부업자치의 작업쟁탈이 원인이라고한다

스포ー츠

國民體育大會 今秋、東京서開催

戰時下의 體育運動의 眞義를 闡明코저 大日本體育協會에서는 今秋十一月三日부터 六日까지四日間 神宮外苑에서 國民體育大會를 開催하기로 內定하엿다 이大會에는 體協加盟團體를 비롯하야 野球、武道、相撲等을 加할터로 今廿八日의 體協理事會에서 確定될터이라한다

中距離王카닝감 아마資格剝奪?

世界中距離界의 王者로威名을 떨치고잇는 米國陸上界의 寵兒『그렌·카닝감』選手가AAU의아마쥬어規定에 抵觸된바잇서 問題를이르키고잇다 原因은 지난二月 日本에와잇든 英國의 蹴球團『코린치안』이 其後 米國『로스안젤스』에가서 四月廿四日에 米國蹴球對戰을하엿섯는데 이때에『하ー프·라인』을利用하야『카닝감』選手가 一哩를走破하엿다 그런데最近에이르러『카닝감』選手가 當時에一十五弗의 報酬를바덧고AAU에 許可업시出演하엿서AAU에서는 報酬受取를 問題로하여 調査에着手케하엿다한바 相當한 處分이잇게되리라는데 이번 事件은 米國陸上界의 十五日米에 끼이지못할것을보아 一般의注目을이끌고잇다

曆

▲八月二十九日(月) 陰閏七月五日 ▲干支癸巳 ▲日出午前六時 ▲日南中午後零時二十五分 ▲日入午後七時八分 ▲滿潮十三時八分 ▲月出午前十時一分 ▲月入午後九時六分 ▲滿潮(仁川)午前七時三十五分 午後七時五十分

오늘의放送

▲午後六時三○分 童話『박나무의열린사파』 ▲六時五五分 修養講話『儉約의必要』(二) ▲七時三○分 뉴ー스 天氣豫報 ▲八時 一、遊山歌 二、제비歌 三、愛國歌 四、鷄年歌 ▲八時三○分 라디오드라마『雨後晴』全三景ー方仁根作 ▲九時 歌曲 一、界面頭擧 二、弄 三、羽樂 四、邊界樂 五編 ▲九時三○分 뉴ー스解說 ▲九時四○分(東) 時報뉴ー스(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十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十時一○分 레코ー드音樂

第一放送 ▲午後六時(大)童話 ▲同六時二五分(東)文化演藝 ▲同七時三○分(東)講演 ▲同八時(大)歌舞伎 阪東壽三郎 ▲同八時四○分(小)鄕土演藝 ▲八時五五分(東) 連續라디오小說 로빈손크루소

天氣豫報

槪況 低氣壓은日本海南部、黃海南部와揚子江下流等에 잇서서東進中이다 이때문에南鮮方面과 朝鮮及關西地方은 處處에 흐리고 비가오다 高氣壓은千島方面에서 沿海州에과저잇서 關東以北과 北鮮은맑게개엿다

豫報 今夜와明日은雲、時時小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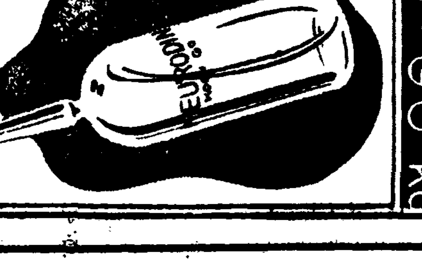
昨日最高 二十八度一
同 最低 二十二度五
今日正午 二十五度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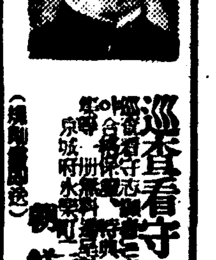
中央舞臺讀者優待券

一、時日 八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每夜七時半
一、場所 太平通府民館大講堂에서
一、上演戱曲 메리메原作『카르멘』全四幕
一、出演者 李白水 金昌洙 外二十餘名
(本報愛讀者에限하야 五十錢을三十錢으로割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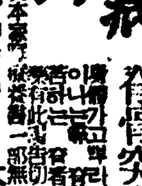
內科 X光線科 天安本町 天安醫院 電二六番 入院室完備 人工太陽燈

女工募集
一、年齡十四歲ー十五歲의普通學校卒業程度
一、身體健康하고 市內에 居住하는者
一、締切期間 八月三十日까지
右希望者는自筆履歷書持參來談할事
京城府旭町一丁目二四
樂天堂製藥株式會社

KONG-GO KONG-GO KONG-GO
神經痛·류마치스治療劑
ネウロジン (金剛)
本劑는 五%부로ー무마그네시움을主劑로하고 此에純葡萄糖을高張性으로配合한無色透明滅菌靜脈注射液이다
【適應症】 神經痛、류마치스、肩痺症、腰痛、神經衰弱、氣管支喘息、胃痙攣、姙娠阻惡等
【包裝】 一○cc五管入 二○cc五管入
各地藥店에서買入하실수잇스나 『金剛製藥 네우로진』이라고 指定하야주십시요
發賣元 金剛製藥所 京城府黃金町一ノ五七 電話本局②三五三·四九六·二七○一



巡査看守(講義錄)
鮮警務學會

公認 高麗産婆看護婦講習所
京城府[illegible] (電話光化門一九七四番)


척수병 脊髓病
手足麻痺骨節麻痺痛 脊骨突出龜背와如히
兵庫縣明石市中町 太平堂製藥社

春岡 裵相哲先生!
관상·사주 觀相四柱
工業案內

慶北一圓을網羅코 綜合防空大演習
警報、通信、燈火管制等訓練
九月中旬頃實施豫定

【慶北支社發】공습에대한 위험에 우리들의 실제로처할화한 훈련 방공의 완벽을기하는것은 가장 중대한 임무로서 경북도에서는 방호단지방종합대연습(防護團地方綜合大演習)을 오는구월중순일부터 동이십일까지유일간 경북도내일원에 실시하기로하였다는바 금번연습은 통신(通信)감시(監視)경보(警報)수령(受領)전달(傳達)등화관제(燈火管制)등 부문에 궁한실천적 훈련을시행하기로 하였다고한다

借金證書改造코 金錢을騙取타被逮

【木浦】빗돈이 못갚은에 몰려서 「아야노」소리를처도야심의귀를 흔리막고자꾸돈후에돈을씨어두다가 결국그도에서 「사」가나서 망신을 한부호가있다 그는 장흥군대덕면(長興郡大德面)에사는 일류부호로 지목받는 이형백(李亨白)(ㅇㅇ)으로 전자동면김모(金某)에게돈얼마를 빌려준증서(證書)에 가필(加筆)을 하여가지고 생돈을더 우려먹으려다가 범의소행이에경찰에서는 그외수구인 동면 강종원(姜鍾遠)(ㅇㅇ)은 그외 먹다가발은 부스러기나 주서먹을가하고 이를 유리하도록위증한 사실로 지난 어신 을일에 목포법정(木浦法廷)에서공판이개정되어 사문서위조(私文書僞造)사기미수(詐欺未遂)무고(誣告)위증(僞證)등으로 이형백은 징역십개월 강종원은징역오개월을각각구바덧다한다

登簿動力附漁船에 擔保融通을實施
—海上保險契約船同樣으로—
黃海道當局의發表

【海州】수난어선구제사업의실시를 보기이전에잇서서는 어선을 담보로하는 자금의융통은 인정되지아니하여 일반어민의불편이 적지안햇는데 황해도당국의발표에의하면 금년칠월일일부터실시된 수난어선구제사업에 의하여 조선은행과 협정하고 등부동력부어선(登簿動力附漁船)에대하여는 해상보험계약선과가튼 취급을바더 담보융통을밧게되엿다한다 이는물론 도수산회의알선이 필요되나 종래어업조합에서 대부하든 공공금융과의 분야를명확히하여 개인금융에끄치는것으로서금융담보가되지안튼 어선을 전부담보로하여 금융과구제사업과를겸하야 실시한것인데 구제금의 교부를바든 『등부어선』을 담보로 너코자금의 융통을바드려는분은 도수산회 혹은수산회 군지부에 출두하여 그수속방법의지시를 바다조선은행또는동은행지점에 신입키로되엿다

西電廣梁灣出張員 公務妨害罪로押送

【廣梁灣】서전진남포지점광양만출장원(西電鎭南浦支店廣梁灣出張員) 선우선(鮮于善)(ㅇㅇ)은 지난이십일 광양우편소(廣梁郵便所) 집배인(集配人) 차영한(車永瀚)(ㅇㅇ)이 우편물배달을 하는때에 괴차간등담을주고받고하다가 싸우게되여 전기 선우선은 차영한의전복을쳣고 얼굴에상처를내엿스므로 피해자 차영한은 어굴함을 어기지못하야 즉시광량주재소에 고발하엿던바 지난이십오일 가해자 선우선을호출하여 취조중이엿다는데 이십사일 상해、공무방해라는 두가지 죄명하에 일건서류와함께 용강본서로 압송되엿다고한다

光州思想報國聯盟
廿七日結成完了
支部長에玄俊鎬氏

【全南支社發】호남방면 충남일대를 관할하고잇는 광주보호관찰소관내 사상전향자 각군대표 약오백여명이 이십칠일 오전열시부터 광주중앙소학교 강당에 모혀 전조선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 발회식을 편바잇지 다수참석하에 성대히 거행하엿는데 동지부장은 현준호(玄俊鎬)씨가 선거되고 기타 간사신임명을 선거하는동시에 전일 준비회에서 성안한 지부세측안과 결의안등을 전부부의하야 만장일치로가결하고 동시일시에 무사폐회하엿다는데동결의안은 다음과갓다한다

決議

我等은 玆에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規約에基하야 光州支部를結成함에當하야 非常時局下에잇는 國家總動員運動을强化擴充하며 反國家思想을 破碎擊滅하고 皇道精神振起昂揚에努力함과同時에 自主的社會復歸를促進하며 邁進할것을期함

右決議함

天安의詐欺賭博 首謀者遂被逮

【天安】충남천안(天安)지방에는 금년이후로 사기도박이 성행하야 그피해액이 불소하다는말을 들은 당지경찰서에서는 이러한자를 박멸시키라고 활동한결과 그연루자는 이미 체포처분하엿스나 그수범인 영동군상촌면대해리(永同郡上村面大海里)에 본적을둔 정갑영(鄭甲榮)(ㅇㅇ)을요지음 마치내체포하야 엄중한취조를마치고 불일내에 일건서류와함께 대전검사국에 송치되리라한다

鐵道總局에서 各地自動車開通

【奉天】철도총국(鐵道總局)에서는 오는이십일부터 적기자동차로선(自動車路線)의 운수영업을 개시하게되엿다고한다

區間	粁程
安東驛—五龍背	一三
西溝—龍王廟	四五
渾源—冷口	一六四
通化—桓仁	九四
朝陽鎭—撫松	一四五
北平安川—五道溝	七五
柳河—孤山子	二八
靑岡—安達	四二
昂昂溪—杜爾伯特旗	一〇〇

總督代理慰問에 笹川知事談發表

【咸南支社發】이번대수해에대하야 남총독은특히 영목(鈴木)전매국장을 대리로보내여서 위문케하얏는데 이위문을바든 세천(笹川)함남도지사는 남총독대야 정부공가위로의에 떠감사하다는 뜻과 이재민들은 대국민의각오를가지고 부흥에일치매진할것을 담화를발표하얏다

五老市民擧市一致 災害復舊에邁進
廿五日復興會까지組織

【咸南支社發】메허로부터부흥의 불타는열성—오로(五老)시내에서는 이번수해로인하야 거이전멸상태에 이르고잇다는것은 누보 한바어니와 이제이참해를바든 시민들은 재건의열의에 타올라서 지난이십오일오후두시쯤부터 시민들이 면사무소에 모여서 부흥회를조직하얏는데 회장은 김장봉(金獎鳳)씨기타 전시민이 일치가입하야 폐허에서다시금 부흥의굿굿한거름을 내디듸것을 협의하얏다

沈坤伊兄弟의特志
機關銃一臺獻納
永川邑官民稱頌藉藉

【永川】본국에이적지로나파가는 영천지방에서는 도하나일반의자랑거리가 생겻다 영천읍에거주하는 대동사영천지부장(大同社永川支部長)으로잇는 심곤이(沈坤伊)군과 그의아우되는 심말암(沈末岩)군이 합력하야 경기관총(輕機關銃)두대(價一千六百圓)을 헌납하고저 당지경찰서장을 방문하고 맛겻다는데 서장도그의열렬한 보국정신에는 칭찬을 마지안엇다하며 더욱이군은 일지사변발발이후로 여러차례의국방헌금이 잇섯고 아프로도여유잇는데까지는 충후국민된본의를다하겟다하니 일반의 본바를바며 칭찬이자자하다한다

(寫眞 右는 沈坤伊、左는 그의 아우沈末岩君)

關北水害救金遝至
奇特한金順吉少年
"벙어리"채寄託
額數론卅圓十五錢

【平南支社發】이번관북일대를습격한 대수해는 유배여이인명을 일어버리게햇뿐아니라 가옥、전토를 송두리채삼켜버려 요행물난리를 면한이재동포들도 의식주를 전부일허버려 그날그날의 참담한생활은 지필로 그릴정도의것이아니다 어떠튼 시급한구제를요하고잇는것은 두말할필요조차업거니와 이러한소식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자 평양사회에서도 구제의손길이 퍼지기시작하여 호상부조의 지성이 나타나고 잇다

더욱이 눈물나도록 감격할만한 것은 김순길(金順吉)(ㅇ)군은 아버지에게로 소학교삼년생 김순길군이 전기상회(電機商會)의 장남으로 「벙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린동무 수해지에 보내주시오」하며 아버지 어머니를일코 집을 떠내여보내고 울고잇는 불쌍한동무들에게 매우어나 주거할데업서 크게감동되여 그의 지성을 칭찬하지안는이가 업다

盧古子百枚寄託 元山李世鍾氏赤誠

【元山】관북지방홍수로 간지주할 수마의희생로는 사실참담목하여 처처에 버러진 이재민의정경은 목불인견의참상으로서 지금가지 해외로 가라 변하여진 데에 허에서 마천당지화해의참상은 언제 일반동민들의 가슴을 더욱이 아프게하고잇다 이에 원산해안통사세종(李世鍾)씨는 조사하매 애수는 삼신원정으로전하고보하므로 벙어리를 열고 저녀이나마 따스한국 밥을끄려먹이며 하옹풀도 보내여주시요 게하여주시요 각각 갈갈을마지아니하엿다 (寫眞은 金順吉君)

元山斷煙貯蓄會 二十圓을依賴

【元山】비참한 처지에잇는재지 이재민에게 보내는 동정의 꽃티 여기에도 또한 아름답게피엿다 원산단연저축회(元山斷煙貯蓄會)는 소화구년도에 영한사람으로 조직된이래 그연조간을 경과하여 해마다 여러가지 사회사업에 더진외잇는데 이번관북지방을 유린한 수마로인하야 피해를 입은 재민에게 역시보내여달라고 이십원을본사함흥정지국에 가져왓는데 일반은 동회의그가의를 칭찬안는이 업다

莞島海岸暴風雨로 漁船被害廿三隻
全壞十一、半壞十二隻

【全南支社發】지난십육일에남선일대를습래한 폭풍우의 피해는 전남도내서는 따대치안흔바없던바 완도(莞島)군내어선의 피해를 자세히 조사하여본바 전괴십일척 반괴 십이척등의 피해가 판명되엿다한다

順川地方暴雨

【舍人】평남 순천군지방에는지난이십사일 절기로 처서(處暑)날오후시경부터 호우가 나리기시작하엿는바 이십육일오후구시 지금까지도 방금계속되고잇다 예로부터 처서(處暑)에 비오면 곡무(穀霧)에 벌이난다는 말이잇서 일반농민들은 매우걱정을하고잇는바 아닌게 아니라 저번폭우에 쓰러너머진 벼들은 공각이될염려이며 방금 성숙기의 조(粟)들은 속히볕이 안들면 싹이나버릴러이므로 각각으로피해는 더하여지는 명랑한비에매우 걱정을하고잇는중이다

警官으로假裝코 農村婦女를弄絡
犯人은稅務署給仕

【平南支社發】평양시가 한복판 서기산공원(瑞氣山公園)에 삼년간이란 긴날동무고 『에로행』단이출몰하야 수다한여자를 폭행한사실이드러나 당시도회의여자들을 아연케하엿고 전평양의화제로되엇든것이 아직도 우리의 머리속에서 아물거리고잇는이때 이번에는 경찰관가다꾸미고 부내한적한 농가의부녀자를 폭행하든 대담무쌍한 소년이 대동서법망에걸렷다

지난구일 평양부 미산리(彌山里)부락에 경찰관복장한 소년이나타나 자기는 대동서원이라고하며 마당에서 자는 사람을 취체하고 또 등불 업시다니는 자전거도 가혹히취체를하야 부락민을 괴롭게하엿는데다시신일밤에도 그동리에 나타나취체를하며 다니다가 동리선부(船夫)최선길(崔善吉)의처김선녀(金仙女)(ㅇ)=모두假名=가 혼자압마당에서 자는것을 여러가지로 못되가 폭행을하고 다라낫다는 신고가 그다음날소관대동서에잇서동서원이 그날부터 경계망을 치고 수사한중 십팔일오후열한시경 도나라나서 여전히취체를하며 도라다니는 것을 체포하엿는바 그는 부내용흥리(龍興里)육십팔번지 평양 세무서 급사 오경준(吳京濬)(ㅇ) 어린소년 으로 급사복이 경찰관복장과 비치가튼것을 이용 하야 꺼질번지 『아까시야』나무를 패여 만허가리 차는리고 못주머니에 열쇠를 만히너허 칼소리와가티 들리게하고 거짓경찰관이 되여 다니며 부녀자를 폭행한든것으로서 방금엄중취조중인데여죄가 만흘듯하다한다

日産倉庫內서 銅鐵多量盜難
犯人은五里霧中

【鎭南浦】이십오일밤 부내대두리(府內大頭里)에 목하건설중에잇는 일산화학회사(日産化學會社)창고에침입하야 건축용동철(銅鐵)약육백원가량을 절취한 대담한절도사건이 발생하야 진남포서(鎭南浦署)에서는 목하범인을 엄탐중이며 대개지상이 판명되여 범인체포는 금명일중이라고 한다

唐津郡下의慘事
—少女二名은同心浦에서溺死—
—幼兒一名은失足해陷井致死—
其外一名은投身自殺

【唐津】충남당진군고대면당진리(唐津郡高大面唐津里) 이희열(李喜烈)씨의장녀 열세살먹은소녀외 무증수는 지난이십일오후두시경 동심포(同心浦)를건너가다가 무참히도 죽엇다는데 시체는다행히차저다고

도지난이십이일오전열시경 석문면 통정리(石門面通丁里) 김경도(金鏡道)씨차남 상오(相五)(ㅇ)는동리우물에 나갓다가 빠저죽엇다고

서산군정미면산성리(瑞山郡貞美面山城里) 장선호(張善浩)씨 장녀 정순(貞順)은 지난이십이일 아침밥을짓다가 어머니의꾸중을 듯고 나간후 도라오지안흠으로 사방으로 수사한결과 그이웃새벽에야 동리우물에 빠져죽은것이 발견되얏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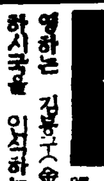
平北奧地敎徒도 江界神社參拜

【新義州】기독교평북노회일천여명의신도가 신사참배 무운장구를기원하얏다한은 긔보한바이어니와 금번에는 산서로회(山西老會)=江界 慈城 厚昌 楚山 渭原에 속하는 약삼백명의 신도가지난 어심유일강계신사(江界神社)에참배하야 황실의어번영과황군의무운장구를기원하엿다고한다

石田新任知事 二十九日來南

【鎭南浦】이석전신임지사(石田新平南道知事)는 오는이십구일오전열시사십일분 진남포역착열차로 내남하야 동일오후영시삼십분공회당(公會堂)에서 인다수를 초대하야 신임피로연을 개최하게되엿다한다

長淵金鳳鳳氏美事 仁丹千包獻納



【長淵】황해도장연군장연읍내리(長淵邑內里)에서 수단조홍상(新興商社)을 경영하는 김봉구(金鳳九)씨는 현하시국을 인식하는 의미와 북지에서 활약하는 황군을 위문하는뜻으로 인단천포(仁丹千包)를 장연경찰서(長淵署)를 통하야 북지황군에게 보내엿다는바 일반은 씨의지성을 칭찬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사진은김봉구씨)

三地商議代表招請 失業救濟策講究
全北道産業課에서

【全北支社發】전북도산업과에서는 금번이 접일오후한시부터 전주(全州)군산(群山)이리(裡里)삼상공회의소 대표와 이리(裡里)상공회의소회의를 초청하야 사변하의 실업구제기타를 협의회를 개최하엿는데 시국의영향을 바다 일반중소상공업자중에는 다소 사업부진한 것은 현하으로 사회상으로 약손(?)... 보험연로 보위 일우고 상공부지리하겟는 역책을 강구하기로 되엿다

全州藥業組合一同 現金定價制實行

【全北支社發】시국하록처리강화에 따라 영업개선의 한방책으로서 전주약업조합(全州藥業組合)은 오는구월일일부터 조합원일동이 현금으로 취인하야 정가판매하기로결의하엿다고한다

流行歌 九曲肝膓 朴響林 Columbia 40826 콜럼비아레코-드

化粧器 理髮器具 鏡台 東亞理髮器具株式會社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一九八八五

強性強精藥 男子性器短小・早漏에百發百中!

商報進呈 早漏防止 五行公司藥品部

高木貴金屬店 京城本町一丁目

時計 スイツル 貿易商會

朝報案內

雇人 募集 女子

綿大投賣 紡績落綿原料 蒲團綿製造元 卸商 池漢桂製棉所

(12.165) 連絡船은떠난다 不忘의글자 ネミ・クツイデ 朴是春 하와이안기타-독주 오케-레코-드

털나는藥 후미나인 博士創製한 털나약 東京藥院

仁丹煉歯磨 效果も香味も一番 安心して使へる!

昭和의常識

장장이그림 장장이애기 나왓다 "少年"九月號

"少年"九月號가 나왓습니다。 朝鮮第一 재미잇고 朝鮮第一 갑싼 雜誌! 읽어서 고대로 살로가고 피로가는 참정말 有益한 雜誌입니다。 어른도 한번 들면 못놋는 책! 各學校 優等生은 호조리 다 "少年"愛讀者입니다。 나오기가 무섭게 후딱후딱 팔리는 雜誌! 어머님께서도 오늘곳 註文해다 읽으십시오。

一冊단十錢・十部以上團體註文二割引・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小兒健胃整腸劑 ベービー散 ベービ散의効能은 製造發賣元 株式會社新井藥房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一家に一瓶 カゴメソース 香味日本一 賣行日本一 カゴメソース本舖

補精腎氣強壯劑 海狗腎 樺太廳官營專賣品 朝鮮釜山府草梁町 大洋貿易社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

腸に わかもと

映畵は日活 優美館 / 第一劇場 / 中央館 / 黃金座

學生 페ー지

〔小論〕 金 ― 醫學徒로서의 一管見

平壤醫專 金德秀

戰時經濟强化의 一手段으로써 前부터 九金以上의 金製品은 製造禁止가 되엇섯는바 去二十日부터는 九金以下라도 一切許可制(但醫療必需品은除外)로 되엇다고한다 따라서 有史以前부터 가장貴한金屬으로 讚揚밧든金도 얼마동안은 우리의眼界를 떠낫것이다 此際에 金의過去를 考察하고 또그愛用되는理由와 그의醫藥的 効果를 略察할도 無意味한事는 아닐것이다

金은 産出이 稀貴한 黃色의光澤잇는 軟金屬으로 展性 延性이 非常하다 그리하야 金箔의 얇은것은 三十萬枚를 重疊해야 비로소 一寸의두께가되며 一兩의金은 三十里에 達하는線이된다고한다 金은空氣中에서 熱해도 決코酸化치안코 鑛酸類에도不溶이다(但鹽素水臭素水王水其他 酸化劑를 含有한鹽酸엔 溶解된다) 金屬으로 古代埃及人이 極度로利用하엿스며現代人의限업는濃愛를 밧는理由는 實노上記의性質에因함일것이다 따라서 金에對한憧憬은人間에게 鍊金術의夢想을 가지게하얏다 西洋의鍊金術은 距今二千年前에 埃及僧이 創始하엿다고하나 信賴할만한記錄이업고 西紀八、九世紀以來로『아라비아』人이 비로소硏究하야 이를傳播하야 十七世紀頃까지도 盛行하엿다고한다 鍊金術者의 夢想은 『賢者의石』의發見에잇섯다 此石(仙丹)은 卑金屬(水銀鉛等)을 金으로化하는 神秘力을有한 藥劑라고 밋고잇섯다 그러나 이러한架空的인非科學的物質을發見한者는 勿論업섯고 따라서 卑金屬이 金으로化한例는 全然업섯스나 이試驗이 多數한新物質發見의 端緖를 이루엇스며 化學乃至科學發達의 基礎가되엿던것이라고 想到할때 그것은決코 無意味한일은 아니엿다고 미더진다

金의 化合物(主로醫藥用)엔如何한것이 잇스며 如何히 利用되는가? 一般으로 單純金鹽은 不安定한것이나 할로겐化 第二金만은 安定하다 例하면 鹽化金 臭化金과가튼것이다 兩者가 다 醫藥으로 利用되는바 前者는 溶劑로써 內服에供하기도하나 主로 癌腫에對한 腐蝕劑로 쓰이며 後者는 軟膏로 或은散劑 散丸劑로內用된다 金鹽은稀薄液일지라도 殺菌作用이잇다는것은 일찌거 코흐(Koch)의 實驗한바로 從來金鹽을 結核에 應用하려고 머리를써온 醫學者가 輩出하엿스나 다 失敗에歸하엿다 그學者의 硏究한 鹽類中에도 겨우 世人의 注目을 끄은것은 下記의 一二種을 들수잇다 인제 그各各에對해서略述하면 이러하다 即사노크리진(Sanocrysin)은 白色粉末(水溶)로 試驗管內에서는 萬倍의稀薄液도 能히 結核菌의發育을 抑止한다고하나 臨牀上應用에依한 成績은 不一하야 贊否相伴하는 現象이다 크리소갈(Krysolgan)은金의含有量이 五〇%나되는金鹽으로 百萬倍의稀薄液도 結核菌의發育을 抑止한다 生體組織內에서 膠樣金을 游離하야 結核菌을 殺滅한다고한다 그러나 臨狀實驗上 効力이 不確實하고 種種의副作用이 惹起되므로 結核性眼炎에 多少利用될뿐이다 아우로칸탄(Aurocantan)은 肺喉頭結核에 靜脈注射劑로 利用하는 臨狀家가잇스나 亦是不確實한藥劑이다

다음으로 金鹽은 그것이可溶性이라면 哺乳動物에對하야 毛細血管을 擴張시키는 作用이엇고 또그것이 排泄될時에 腎臟에變性을 이르키는故로 金鹽의 服用에依해서 中毒을 일으킬可能性도勿論잇다 그러나古來로그 顯著한例는 업섯고 다만埃及文明時代부터 人間의限업는 黃金慾에因한 紛爭와爭鬪 그에따른 悲劇은 內臟의中毒症狀에는 比較도못할만큼 慘酷한것이 아니엿슬가 左右間過去에 諸醫學者의硏究한것이 未來에成功한다면 金의價値는 過去現代以上으로重大해질것이고 또 그러할것을期待하면서 擱筆한다

草堂의挽歌

法大英文科 金圻洙

새파란 달빛아래 처리인 懷恨을 얼고
뒷東山 숩속에 百日紅하나
매디 매디 피여난 꼿가지속에
懸燈道는 설움에 자즈라지고。

구비 구비 타오르는 박넝쿨우에
無心히 피여난 박꼿봉오리
수집은 게집애의 솜씨련만은
달뜨면 草堂의 설움이란다。

피여오르는 안개롬으로
고이 고이 잘드는 숩나무속에
매마른 鳳仙花 호젓한 꼿송이
달뜨면 우렐리 설움이 만코。

鰥寡年 흐르는 날과 밤에
사뭇치는 가슴속에 어리는 懷恨
질듯 말듯 海棠花 처럼
이슬마저 달아래 한숨이란다。

얽혓다、퍼그린자에 채쭉질하면
華房에 저저드는 醫者의 냄새
昔夢하는 가슴속에 愛情을안고
月章우에 淚像을 적신다。

엉은듯 떨친듯 조이는 마음
멀리는 내입술로 네입술을 악물고
天涯에 달리는 구름담 처름
志知의 洞水에 傷魂이란다。

따우에 그리는 구름길의 花紋처럼
내가슴우에 얼키인 苦怨
지우면 숨여드는 이 몸숨사랑
뻘간댕기 芳草속에 꼿피엿고나。

無題……詩

晉州高普 鄭泰

때로 하염업는 生覺에 잠기여
東녘 하늘에 가로누인 雲을 어리재재고
피로운 눈瞳子를 의지하야
하이얀 구름을 바라오。

뭉게뭉게 참으로 豊富한思想이어서
눈물에 어린가슴이 아프게 쓰리다가도
愛慕의손! 情熱의具像! 歡喜의禮衰!
마음이 아프도 솟노구름어 설레임을 鎭靜하오。

가고 도가고 흐르고 또흐르는 너는
때론 웅탈의 人間性의 變化가되면서도
彪大한 包容性! 굿건한意志! 自由로운 表徵
는 恒常나를 네게로 홀려……解放시키느냐!

그러나 永遠히 明朗바는 한목숨의 律動이
가양될때 비록! 어두운想念일지라도— 너
의꼬삭한알가슴을 바라고 服膺의 푸른를게
를 던저보노니
時間에 빼아슨 生의咆哮는 悲哀의 交叉點

어 無心되여!
無價한 너마음집에서 어린애처럼
항시보드러운 觸手를 그려
얼마나 憧憬에 손을 처엇스며
도한 여린 情熱과 떠러질번 하엿드뇨。
그러나 모든 구름중에서도 오히려
다사한몸 아스랭이와 꿈지온 보담나즈구름과
淸明한가을 高遠한理想속에 깃드리는너를
그한쪽각 한쪽각을 빼는 가장 사랑한다
沈默한 그대처럼。
아쉬움게도 때로 하날오리여
東窓가 내憂鬱의 푸른바다
내慣慣의浦口、終點에 그대 無限한그림자여서
꼿피볼 情熱의 主旋律것고 悲哀의 곳속에
깃드리게하다。
午睡에서 깨여난저녁、어둠에 거대한노래
날마다 기쁜悲樂에 잠긴방——憂愁는
惆悵을 낙거
그러나 그대明朗한것、내거처른 航路의 歡合이여서
차분한 바다의 航行에도 그다지의暴虐안하다

〔史蹟行脚〕 勝景의靈峰 九月山 ―貝葉寺의숨은秘史―

延禧專門 金昌鎬

出!!山이라면 시원시원히 嗅어숫은 나무로 얼기설긴 서늘한 그늘을 憧憬케하는바 限이업지만 山谷에 흘으는 溪流는 元來 차디찬것 비길데업슴에도 흘러흩어지고 깨지여 떠러지는 滔滔한물소리는 이한철의 遊客들을불서도 잡아끄으는바니 想像에는 너머나도 지나친 淸凉이라고할가 그것도 그만두어라 어곳은 九月山! 이름조차 美奇한 美奇瀑을여메 끼고 엉얼이부서지는 물방울에『타올』을 적신채 나무가지 얽이섥긴綠色터널을 걸어좁다가로세로걸어世俗을脫하여 通道成佛하는 洗心臺에가는길、올은편에 놉직이 君臨하는 佛堂이 곳 貝葉寺라니 바로여기잇는가 九月山의大本寺라 實로 峻險한 連山中腹에 置하여 地盤이 雖固한中 끗임업는 물소리와 흣터지는 水泡飛沫은 이곳을 九月山답게 꾸미는 偉大한 勢力이잇스니 山과물을말하는 健脚은 이곳을차즘이 어떠할것인가。

×

절간을 휘둘으고 山골에차저드는 새벽종소리에 아침잠을 깨울리지도 어머여러날 고달픈남어저 아침에는 괴롭吐하다는『솟적다』의杜鵑새울음에 벙울 기운재도 도한여러밤 그동안도 절간房에 깊숙하안즌 나를 서울언지가 한두번이 아니엇저만 九月山의 主峰이라하여 西편에 솟슨思皇峰은 卒然혀 눈아며 어리어 이것을制御하려는 氣勢자못悲能服해진 하로아침 木杖하나로 征服하기로하엿다 勿論 遊覽그것을 臆想적으로써 禮拜할것이고 意局의形境이란 遊覽그것으로 添花되는바이어서 變險難關의意氣는 目前에 到達한山頂에 一層더한壯觀을 提示하는것에 더욱 意義깁지안엇는가 畢也에 到達한 黑皇峰上、거기에 四米突木柀을세울때 그것은 通不足업는 海拔一千米突의 靈峰이엇스니 西로黃海를건너 저편은 猶不及이나 長山串은 目下에잇고 北에는 大同江口를 건너鎭南浦를 바라보며 東、南으로는展開한 黃海의平野를 俯瞰하는 爽에 겨워 絶勝의 景致도 또한 울리여보다 어뿐이라 左右兩便에『초대峰』을 세우고 그中央에 香爐峰이 銀默한 連峰은또한 이에 못지 아니하며 禪君이修業時代에 親히안즈시고 學問을 닥그시엇다는데서 由來한 禪君臺는바로 貝葉寺南쪽呼應의 巨胸에 솟사잇스며『禪君…入神於阿斯達山』의傳說이 잇는阿斯達峰은 禪君臺에서 좁떠러진 南

特하게 豊富하여엇다 어제는 오고가는 探勝客들과 遊覽人士들이 日日數千名을 헤어게되니 어찌 九月山이 勝景의俳優아닐것이며 구즌비오는 저녁에 九月山을 차저노흔 傳說로 밤을새임은 도한이곳이 傳說의鄕임을 代辯하여 充分하지 안흘가

×

이것뿐이랴 素朴한 山谷에名勝을 背景삼고 佛殿을 磨石삼아 寒山寶殿 地藏殿 觀音殿等으로 儼然히 鎭座한 貝葉寺는其實 고달픈 발자취를가지고 아득한世上에 알려지지못한歷史가 잇스니 못엽는 말이 한듯뭇 현적이는 舊殿僧의 이마에 이것을 비최여 볼가

지난千年남은 歲月동안 가진 風雨曲折을 겨은 貝葉寺의 歷史는 이절의 名稱의 變遷으로 四期에分함이 自然스러울것이다

第一期 이것은 이절의 初創時代어니 이름을 具葉寺라고한때다 新羅朝末葉 正確한 햇수로말하면 距今一千一百三十八年前 中國서 具葉이라하는 大師가 이곳을 차저와 洞民에게 됨山을울으나 어롭하여 五峰이라고 五峰이란 中國에 엇는山으로 그여때 寒山이 엇서서 文殊普賢兩菩薩이 여거서 通道成佛한바이어늘 朝鮮에도 五峰이 또한 잇다함을 實로 이곳이절을 절에 適所가 아닌가하여大師의 奇異히 여겨바되자 大師자 五峰山頂에 올라가 新禱하는中 文殊普賢兩菩薩을 맛나뵈앗다한다 그리하여 速히 내려와 절을 짓고 여기에 어두풍藤을 懸시게되엿스니 이곳 寒山寶殿에 文殊普賢兩菩薩을뫼시게된것도 여거에 起因된바라하며 當時의일홈을 具葉寺라함은 創建主具葉大師의業蹟을記念하여 그의 어름으로 名之한바라한다

第二期—隆盛이랄맛자 別것업지만 그러나 어절의 過去에잇서 後興期라 할만한때가 바로이때니 어름을 貝葉寺라고 한때다 어러케 改名한理由는 何故오? 一高僧이 西城에遊學하여 印度書貝葉經을 가저다가 具葉寺에 藏한바되니 이에貝葉寺라고 하엿다 貝葉經이란 무엇인가? 貝葉寺碑文中『…以貝葉者何居貝多羅者天竺樹名浮屠氏以其葉爲經猶吾儒之用竹簡也…』라함에 名示함가터 印度所産의 나무잎에經文을記錄햇스니 곳貝葉經이라고

第三期—世月이逆轉이랄가 貝葉寺가 그만敗葉寺가되며 最近까지 그餘命을 겨우保持함에도 可憐한 身勢가되엿스니 敗葉寺로一稱하여 貝葉寺를 意味하게 됨은 以貝興敗同音故라 그리하여將來를 憂慮한 이곳의 스님들은 드듸여 寒山寺라고 하게 되엿스니 文殊普賢 兩菩薩과 關係잇는 寒山을 이곳五峰과 關聯시키여 命名한것으로 今日에도흔히 불으는이름이다

第四期—이러한 頹勢가 今日에이르자 最近의 寺刹令發布와 함께 이寒山寺는 復舊하엿다고 할가 以前의人것이 復活하엿다 할께 다시 由來깁흔 貝葉寺의 이름을 冠하게 되엿스니 곳오늘의 貝葉寺인것이다 어려한四期分類를 試한것이 어떠한 創期的史實에 依據하엿슴이 여니다 單純히 어름의 變遷에 依한데 不過함에 反하여 今日의現住持大師는 過去千有餘年間『木皀』과『念佛』만이 傳說이되고 守하精神에서 一躍하여 龍華殿의 改築으로信心을 策勵하하고 많은 藏書도 圖書室를 備置하여 硏究를 차즈는等 實로貝葉寺의 將來는 明朗하다고할것으로 過去의 어느時代의 이름보다 今日의貝葉寺그일음 讚하다

끝으로 言及코자하는것은 貝葉寺가 保藏한 神奇한『木皀』이다 이것은 創建主具葉大師가 自製하여 齋面에使用하셧다는것으로 듯건대 具葉大師는 天下一品의美男子이어서 그가 敎하려 民間에 나려오족隣里婦女들이 大師에게 惑하바되여 어려한結果는 自身의修道에도 不可다하여 어떠한 木皀을 所用한것이엿다고한다 具葉大師 齋眼窩에 蔑시엿스니 오늘에 美男子로 自處하는 者는 꼭한번 이곳에 와봄이 오떠할가

——끗——

〔詩〕 밤車

京城中學 崔載亨

새까만 밤에 열며나가고 열
며와 부더지고、
車窓엔 적고적고 빗방울어 열
넘다。

鄕愁는 靑葡萄 알가티 부프
러올나 쉬얼두알 삼키여 보다
니
어밤엔 湖水처럼 마음만 소란
코
오자는 想念들이 케짓고 다티
나다。

푸른 복숭에 괴여나는 꿈 조
각조각 蒼白한 얼굴엔 琥珀色
疲困이 나려덥고 車中엔 웃숭
중 沈默어 괴여돈다。

海底처럼 호틴 물결을 헤치
고
돌니는 꿈틀의 呼吸의 高低—
때는 車窓에 미그러지고
나는 金붕어처럼 혼자 여름다
울답고

밤한층 고달픈 나그네의 꿈
까아만 밤의 洞窟을 돌코 달
니는 밤車 산모롱이 헐네벌떡
회도타 나가고
밤의 怪物은 달나귀처럼 설게
울엇다。

災地報告 濁浪·泥海

咸山佛敎書院 玄 坡

K兄! 어제 災況을 좀더仔細히 告하기爲해서 우리 고장의 地理부터 잠간 말하겟습니다。 우리집을 基點을잡고말한다면 西北便에 우뚝솟은 白雲山이란 高岳의落脈인 大小丘陵이 蜿蜒數十里를 빼처내려오다가哈蘭平野변두리에 와서는 마치열 손가락을 펼처노흔것가튼 形勢로 뚝 끈처 坐定을 햇습니다 이 손고락과 손고락과의 사이의 第一큰 한골작이를 차지하고 우아래 近三百戶가 옹복모여사는곳이 바로우리村입니다。 그럼으로 압뒤가 모다 山이여서 처운겨울에도 세찬바람의掩襲을 별로當치안는 極히 向陽한곳입니다。 아프로 겨룽진바를 여러때거隔해서 맑은시내물이四時로 金剛褐의 南山빨미를 소처갑니다。 그러므로 연편으로한 거룸나아가면 西湖大野이고 바른편으로 한거름、들어가면 深幽谷입니다 그리고손톱과 손톱과의 사이인 地點은 面所、學校、駐在所等의 官廳이 잇는 조고마한 市街이여서 장날이면 좀 窘陳하나마 生鮮도 어들수잇고 間或 밤이면국수주렴도 갓다올수잇습니다。이룰테면 장작불에 힌 쌀밥지어먹는 四圍가 떡 調和된 平和鄕입니다。

여곳에서 다시 잠간 左向해서 遠望해본다면 발고락끄테서부터 起點인 三等道路로 二十里가량 줄기차게 哈蘭平野의心臟을뚫고 直走해서 막다른곳이 바로 關北의雄都 咸興입니다。 어咸興市를 둘러싼 盤龍山을또다시 돌러차고 浴浴히 흐르는 것이 萬歲橋로 有名한 城川江이고 西南쪽에 아득하게 뵈이는것은 渾浦라는 湖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번적들고 바라보는 南面에는 本宮의 化學工場과 興南의 窒素工場에서 無時로 뿜어내는 노란煙氣의 煤煙이 家書를 엮허며 大空을向해서 무럭무럭 올라가고 그바로 한편에는 西湖津바다의 紺碧色水平線이 활작 개여날이면 까마득하게뵈입니다 이러케 理想鄕인 우리고장이 一朝에 水國으로化하엿스니 하나님의 노염도 이만저만치 안엇습니다。

바로 八月十七日子正의일입니다。 벌서 여러날재 퍼붓는 雨勢가 尋常치안케 生覺되는次에 여남밤은 유난스레 줄기찬비가 맛치 甁에서 물따루듯하고 번개가번적 천둥이우루루할때는 도란도란 모여안젓든 온食口들은 約束이나한듯이 一時에 오돌오돌 놀랫습니다 새로한時자 증측하더니 웬걸 압村에서 갑작어떠 號하는 喊聲이 들리더니 莊丁들은 한꺼번에 아이들을 등에업고 안村으로 달려왓습니다 安全한러人세만믿고잇든 우리一家族은 倉皇罔措하다가 손길을맛부잡고 죽어도갓치죽고 살아도갓치살자는 悲壯한決意로서 삽작을 나섯습니다 웬걸요 벌서 집덤이가튼물구비가 정엽 둥둥 를 침술지아켓습니까? 『뒤으로빠지자』는 나의先唱으로 井廚를 거저 울안을 나섯습니다 도어건 웬일이겟습니까? 뒷山골채이에서폭포가티쏘다지는물이 屛後를 包圍햇습니다 이러케 腹背受敵이 되고 退路조차 遮斷되엿스니 꼼작업시 死境에 直面햇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처가며 艱辛히 뒷山바우미테이르러 비를 노바마즈며 떨고떨면서 그한밤을 새웟습니다

兄! 먼동이 훤이틀때 눈아페 어섬프레나타나는光景은 實로 엄청낫습니다 첫눈에놀란것은 엄청나게變動된 물의 進路입니다 안골에서 네려놀지는 急한水勢가 건넌山즈림을 콱 죄며 네려지르고는 다시猛烈한退勢로 엉뚱스럽게 우리村으로 닥처들어 다 삿키고 또 그엿사이 비스듬이 건너便 여래장거리를 바치면서 이리쪽 저리쪽 左衝右突의行悖를하고 달아낫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얄미운짓입니까? 그러케 거물이 되지 말곤 一直線의 濁流를따라내려 갓다면 조용히갓든기로니 江岸어나 被害는 잇엇켓지 이러케慘狀을 演出하엿겟습니까? 全洞에서 人命死傷이 三名이고 家屋流失、倒壞가 二千餘棟입니다 多幸히 우리집은 立體그대로安保햇스나 井廚에서 리저나오는 개천줄기를 處理할길이업서 방목미를 뚫고 下水溝를노아 큰게울과 連通을햇드니 溯流해온 鰷魚떼가 부엇케서 流泳하는珍風景을 나타내고 잇습니다。

兄! 다시山頂에올라 遠望하는光景이 또한 어떠켓습니까? 무엇은 돌관이 겨큰꼬푸타나무만 남은 들판이 넘임왕어고 其餘는 모다 一樣의 水色이여서 文字그대로 泥海요 水國입니다。 桑田이 碧海된다는古語는 想像만하던 神話世界가아니고 눈아페展開된 現實입니다。

廣大한 城川江이 上流에서數處의 堤防決潰로因하야 大部分의水量이 平野로 移動된것도不拘하고 下流의 咸興市堤防을汎濫하라고까지 햇스니 平日에늘 樂防의 부실업는 過高의 限度를超實하는 나로서는 정말 毛骨이 悚然햇습니다。 여여 그一般에 險惡에處하엿기보다 一方으로는 託抗性을 善用할性의重要도 엿습니다。

兄! 안그러햇슴니까? 언제까지나 한번充實이 될것가지 압흔 그—물고기흔 江流가 척척 굽비처 滔滔濁浪이 꿈틀거리며 구비처 흐른것스니 얼마나 雄壯快活한話境이겟습니까?

벌서 들릉이들리는 傳言에만 依하더라도 隣近洞의人命喪失만 어 近百여니 咸興一帶에 互하야 不可形言의慘狀이 判明되리라고 豫想됩니다。 또한 살아난사람인들 무엇을먹고살아가겟니까? 兄! 어떻은 무슨惡緣이엿서 年年이 淡禍가차저들니까? 書天도 너머無心한가봄니다。 明春은 또 移民列車자 누레기룰엽고 박아지를 주렁주렁달아맨 白衣人을실고 고동을틀며 北으로 北으로 달릴것이 눈아페 확안이 낫하납니다。

兄! 의고장은 福害가 幸餘 업스섯지요? 매번 南北어떠저잇다하더라고 하도큰 水亂어매 저응어 念慮되오며 또한 梅史의 感候도 좀어떠하신지 모도 열고자합니다 나의健康은 서늘한 가을도 또房안에서 누워보냅니합니다

——끗—— (八月十八日)

淋疾의內攻擴大防止에 銀內服劑!

感染直後의치료와 療法選擇上의주의

림질은感染初期에治療를잘못하거나 혹은아주苦痛이 一時減退되는것을全快로밋고 치료를中止하거나 하며 조섭을아니하시면 여러가지 深部로 집입擴大되어 여러가지의重症을일으키게됩니다

먼저正當한료법의선택이必要하니 즉환부에자극을 주지말고 환부의림균을멸살식히는 斯界唯一의銀內服治淋藥인「바로ー루」로써 치료하여야만根治되오니 종래의치료법인 單一內服藥의 위장장해 불쾌표통을주든 注入 挿入 洗滌法의결함이 바로ー루의出現으로 해결케되엿읍니다

그런므로 淋症의特徵인 內攻擴大의防止에는 深達性殺菌力이强한優秀한內服藥이라야만되는것을 아르셔슬줄민읍니다

銀內服藥의發明

京都帝大化學硏究所의發明特許「金屬을가노좀製法」을應用하야 殺菌 防腐 消毒作用이强한銀을極徵粒子(코로이도)化한것과 鎭痛 利尿 收斂作用이 어혀저한 內服用의白檀油와의特殊結合으로된은 本劑 「바로ー루」는斯界唯一의銀內服化達成劑로서兩劑의藥效相乘作用에依하야 治淋效와深達力이 어혀저한 一劑로써 內服 外用兩劑의藥理特徵을兼備한 治淋新藥입니다

바로ー루를服用하시면膀胱으로부터吸收되어 血液組織에침투되어 尿道側管 攝護腺 副睾丸 睾丸 子宮內膜 卵巢 喇叭管等에潛在한림균을멸살식히고 炎衝을 어순하하게하여 患部의新生恢復을도모하여주며 효는內部로부터外部로治癒식혀 줌으로 증세의惡化를방지 하며 또運用하여도 절대로 副作用이없이 短時日안에낫게하여줍니다

바로ー루는 權威잇는 京都帝大化學硏究所의創製하신藥인만큼 그藥效와信用은 어로말슴드리지안어도 짐작하실줄 밋사오며 京都帝大病院을위시로전국유명한病院에서는 목使用되고잇는藥입니다 하로바삐本劑로根治식혀주시기바람니다

無代進呈 新刊冊子「淋疾과그療法」을本報愛讀者께無代進呈합니다 本劑는全道有名한藥房에서販賣합니다 만일品切된때는직접本舖로주문하시면대금인환으로도송약함

京都帝國大學化學硏究所創製 (製法特許)

바로ー루 パロール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四十五錢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 振替東京五四〇番 大阪市東區淡路町 振替大阪七七九五番

朝夕生涼! 只今부터服用하시요

天下名藥 百補丸

立秋

체증을 根本的으로 곳치십시다
陽氣不足을 根本的으로곳칩시다

百補丸의特長

一、大補脾胃하야 체증根絶!
二、大補元氣하야 陽氣永續!
三、氣血不足、神經衰弱、肺病、해소等이 原因的으로 一掃됩니다

生男生女 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靈藥

부인자궁병냉병경도부조대하항증에 婦人百補丸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無料進呈 (以上藥이나 共同注文하시면 一劑無料進呈)

京城府堅志町五ノ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三三〇番、振替五番

若劇 冷房完備

八月二十九日ヨリ八月三十一日マデ 五〇セン…!

大朝ニユース	11·00	2·45	6·35
間奏樂	11·10	2·55	6·45
大毎ニユース	12·55	4·40	8·35
其の夜の眞心	1·05	4·50	8·45

(二)コロムビア映畫 主演 グレース・ムーア ケーリー・グラント
(四)コロムビア映畫 主演 ワーナー・バクスター マーナ・ロイ

早朝割引映畫御入場の方ハ 三十錢均一二割引致シマス 冷房完備

八月二十六日부터 特別大公開 佛蘭西아리안스社 超特作日本版 世界的文豪 톨스토이翁不朽의名作 『사농당』의映畫化! 巨匠 마루세루·루비에氏監督作品 火の夜 가야바!모루레에! 빅·훌 한란·씬 主演

獨逸바바리아超特作日本版! 名匠 로바—드글루—드氏監督 南方特急列車 옷도둑배루넘게 도대!벌루리나 主演

PCL超特作全發聲! 原作 古川綠波 監督 大谷俊夫 ハリキリボーイ 古川綠波 杉寛 岸井明 徳山璉 二益愛子 能勢妙子 江戶川蘭子 主演 助演

優美舘 電光三九五

劇團靑春座公演 ▲八月廿七日밤부터 李瑞求作 『사라진·무지개』 六幕 運命은흥男子로하여금한女子를사향하게하엿다。목숨을觀처도아깝져안흐리만치……그러나 歐血男兒의理想와衰運은兵全하운命을함有反하고更生의길을開拓하여다妖魔한무지개가사라지는곳에眞正한光明이비조이고잇다。보라!正義의悲劇을!

南宮春作 『二十一日事變』 三場

◇特別豫告▽ 九月三、四、五日(三日間晝夜二回上映) 納涼名畫大會…(第一週) 料金十錢均一……於府民館 ギヤバンの『どん底』 ボアイエの…『かりそめの幸福』 PCL超特作…『良人の貞操』 ◇부디 期待하소서!! (上映名畫)

東洋劇場

八月二十七日より二十九日マデ 納涼特別名畫幕間實演公開 土曜日曜祭日十二時七時半始映 ◇全勝特作映畫 時代の風雲兒 監督 金田繁 主演 松本榮三郎 幕間 萬歲 漫の白糸第二代目 水藝 ◇廿世紀フオツクス特作映畫 限り無き世界 監督 ジヨージ・シヤル 主演 ジヨージ・オブライエン・メリイ・ブライアン孃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話本局五六七七番)

平壤·大劇 三十、三十一兩日 大劇名畫祭!! ◇RKOラヂオ社超大作 大帝の密使 美男 アドルフ・オウル・フリユック 渡米第一回主演 ◇佛SFL超特作 監督 シヤック・ドヴアル 禁男の家 ダリユウ ダリユウ主演 外東寶映畫傑作品 每日晝夜變更上映 京日、讀賣ニユーズ ▲料金 二十錢均一

本報叢島支局 本局二八八六